

“동교3번 공영노상주차장에 2017. 4. 30.(일) 입차한 고객님의 차량을 확인하였습니다. 고객님의 차량(61루\*\*\*\*)에 대하여 동교3번 공영노상주차장 운영시작 시간인 11:00 에 촬영된 사진을 확인 하여 본 결과 이미 고객님의 차량은 흠집이 있는 것을 사진에서 확인하였습니다.”

위와 같이 답변을 주시면서 메일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.



위의 사진처럼 붉은색 원으로 표시해주신 부분이 주차장 운영시작 전에 흠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신 부분입니다.



위 사진은 주차뺑소니를 발견한 이후 제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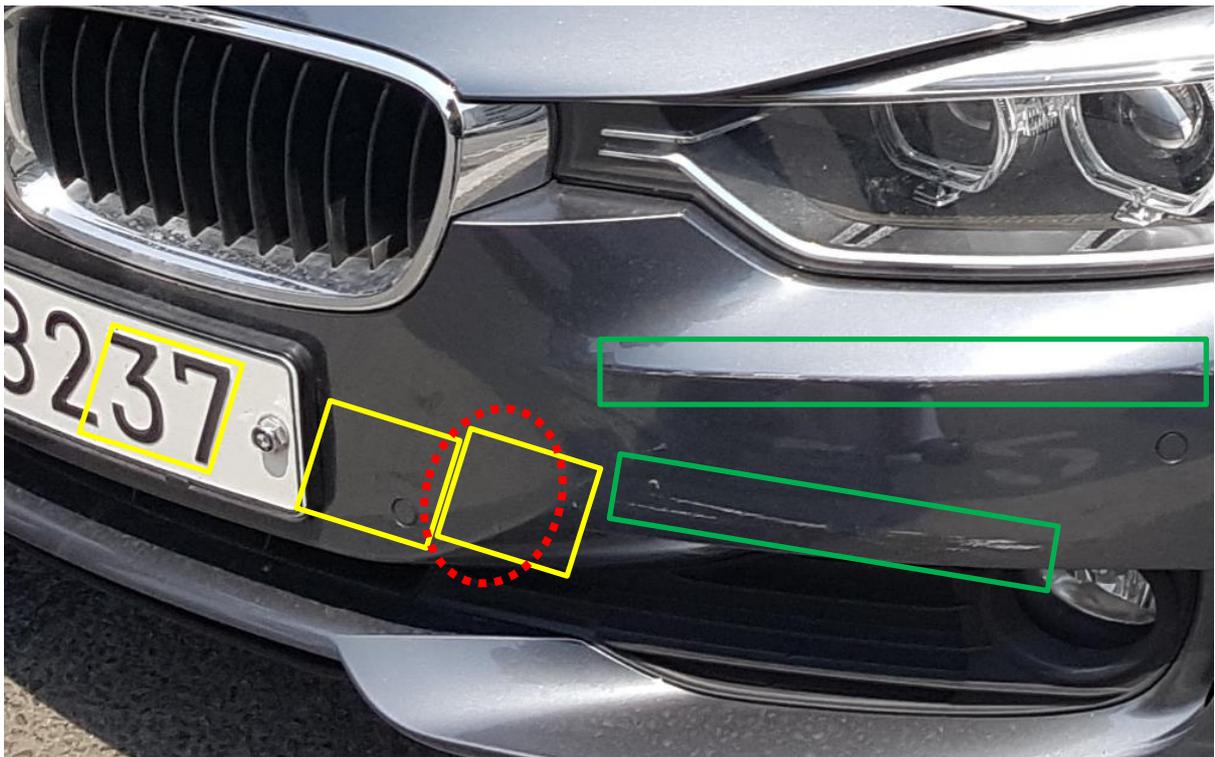
그럼 두 사진을 비교해보겠습니다.



우선, 보내주신 사진에서 차량 뒷번호 2자리 "37" 에 표시된 노란박스<sup>주</sup> 크기를 기준으로 번호판 우측 끝에서부터 두 번째 노란박스안에 흠집을 표시한 붉은색 원이 거의 들어오므로 두번째 박스가 위치한만큼의 거리에 붉은색 원이 위치한다고 보겠습니다.

*주) 주차장 측에서 촬영한 사진과 제가 촬영한 사진 상의 차량 크기가 달라  
사진 속 차량 번호판 숫자 2자리만큼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기 위해 노란박스를 그렸습니다.*

그럼 위의 사진과 비교해보고자 앞서 제가 촬영한 사진을 확대해보겠습니다.



앞서와 마찬가지로 숫자 "37"을 기준으로 노란박스를 표시했을 때, 두번째 노란박스의 위치에 보내주신 사진 속과 같이 붉은색 원 표시를 했는데, 이 사진에서는 흠집이 안보이죠?

**(실제 차량에 발생한 흠집은 녹색박스입니다!)**

따라서 붉은색 원 표시 한 부분에서 보이는 (흠집처럼 보이는)흰색 부분은, 단지 차량 범퍼에 있는 각진 부분이 명암에 의해 사진상으로 흰색처럼 보일 뿐입니다. (아직까지 차량을 그 상태로 보존하고 있으니 직접 오실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육안확인이 가능합니다.)

**따라서, 주차장 입고 전에 발생한 흠집이 아니라는거죠.**

참고로 동시에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한 장 더 보내드리니 참고해 주세요.

